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

신철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위인들이 쌓아올린 업적과 경험들을 잘 정리하여놓고 후대들이 그것을 물려받도록 하는것은 현시대 사회과학자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생애의 전기간 민족문화유산계승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이 유구한 력사발전과정에 남겨놓은 옛날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록문헌이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무엇보다먼저 민족고전문화유산수집 및 보존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수한 민족고전들을 수많이 남겨놓았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문헌의 나라로 불리울 정도로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찍어내어 세계에 명성을 떨쳐왔지만 민족수난의 력사와 더불어 적지 않은 민족고전들이 파묻히거나 잃어지고 흩어져버렸다.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제일로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정세가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발굴수집하고 잘 보존관리하는 사업을 지체없이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의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발굴수집하고 잘 보존하여야 새 민주조선의 새 문화를 찬란히 발전시킬수 있다고 하시면서 민족고전수집 및 보존사업이 전국가적인 사업, 전군중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35(1946)년 4월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이 채택되고 주체37(1948)년에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가 나오게 되었으며 주체38(1949)년 8월에 내각결정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이 채택된것은 민족고전문화유산들을 수집하고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담보가 마련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35(1946)년 9월부터 국가에서 돈을 대주어 민가와 개인서점들에 있는 민족고전들을 수집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주체36(1947)년 2월에는 기관, 기업소들과 개인들에게 호소하여 민족고전들을 기증, 희사하게 하는 전군중적운동이 벌어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기간에 수집된 수많은 민족고전들을 조선력사박물관과 중앙도서관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 등 주요박물관, 도서관들에서 잘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적들에 의하여 파괴소각되거나 도난당하는것을 절대로 수수

방관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민족고전인 조선봉건왕조실록구출작전을 몸소 조직지휘하시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건져내도록 하여주시고 그 안전보존대책을 세워주신 이러한 조치는 동서고금의 그 어느 전쟁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일이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많은 일군들을 나라의 곳곳에 파견하여 민족고전들을 수집해오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시기와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들을 적극 찾아내고 옹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민족고전을 수집하며 국보적인 민족고전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외동포들이 민족고전을 기증하는것을 애국적소행으로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외국에 학자대표단을 파견하시여 귀중한 민족고전문헌들을 찍어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고전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중요 민족고전유산들을 국가문헌부문에서 영구히 보존관리하도록 해주시였으며 명산인 묘향산에 《팔만대장경》보존고를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주심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민족고전문화유산을 통하여 민족적공지를 간직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한문으로 된 민족고전들에 대한 번역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고전번역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통찰하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주체41(1952)년 4월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국병감》을 비롯한 우리 나라 민족고전을 번역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그것이 군인들과 인민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우리 나라의 력사와 과학문화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을 받들고 민족고전번역부문에서는 1950년대에 《동국병감》의 번역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동명장전》, 《리충무공전서》, 《삼국사기》, 《동국세시기》 등 많은 민족고전들을 번역출판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삼국유사》, 《고려사》 등 력서관계의 중요민족고전들과 《성호새설류선》, 《징비록》, 《지봉류설》, 《과농소초》, 《택리지》 등 여러 분야의 민족고전,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등 의학관계의 민족고전들을 번역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방대한 민족고전인 조선봉건왕조실록에 대한 번역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 민족고전번역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519년간의 력사적사실을 일기체형식으로 적어놓은 정부일지인 조선봉건왕조실록은 권수로 1 763권이나 되는 방대한 문헌으로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몸소 구출작전을 펴시여 건져내오도록 하신 조선봉건왕조실록은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에 보관되어 과학연구사업에 리용되고있다.

고전문헌들을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품으신 위대한 수령님

께서는 주체59(1970)년 10월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사업을 발기하시고 수집차례의 간곡한 교시를 주시여 이 사업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난 시기 번역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바로잡아주시였을뿐 아니라 조선봉건왕조실록번역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번역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렇듯 정력적이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 400권으로 된 조선봉건왕조실록의 번역본이 훌륭히 출판되어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문화재로, 우리 인민의 진정한 향유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분량이 방대할뿐 아니라 현존하는 옛 대장경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으며 내용이 풍부하고 정확하여 국제적으로 표준대장경으로 공인되고있는 팔만대장경의 선역본이 전 17권으로 편찬발행되였다. 그리고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의방류취》 등 의학관계 민족고전들이 우리 말로 알기 쉽게 번역출판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전문학작품들에 대한 수집정리와 번역사업도 진척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전 100권으로 구성되는 조선고전문학선집들이 정연한 체계를 갖추고 번역출판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춘향전》, 《심청전》을 비롯한 소설작품들과 《시조집》, 《가사집》과 같은 시문집들, 《김시습작품집》, 《박지원작품집》을 비롯한 개별적문인들의 작품집, 《기행문집》, 《임진의병장작품집》, 《력대격문선》 등 다양한 형태의 고전문학작품집들이 훌륭히 번역출판되어 우리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다음으로 민족고전전문가양성체계를 세워주시고 민족고전전문가양성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신것이다.

민족고전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하고 번역하는 사업은 이 부문 전문가들을 키워내는 사업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력사적기간에 이루어놓은 민족고전들은 그 량이 방대할뿐 아니라 대부분이 해석하기 힘든 문자인 한문으로 씌여져있고 게다가 우리 선조들이 한문을 들여다 사용하는 과정에 우리 말의 특성에 맞게 조선식한문으로 기록한것으로 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번역하며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은 짧은 기간에 수행될수 없다.

따라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자면 이 부문 전문가양성사업에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일찌기 1956년 3월 **김일성**종합대학에 한문학과를 내고 이 부문 전문가들을 양성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도 민족고전후비육성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여 **김일성**종합대학 한문학과를 고전문학과, 민족고전학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으며 민족고전전문가양성을 위한 학과목구성과 학제문제, 교재와 참고서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뿐만아니라 1980년대초에는 사회과학대학을 설립해주

시고 이 대학에서도 민족고전전문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해주시는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들에 따라 민족고전후비양성체계를 강화하고 민족고전전문가양성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간 결과 《민족고전학기본》, 《한문문법》, 《고전문헌편찬사》, 《리두》 등 민족고전학의 학과목들이 갖추어지고 《새옥편》, 《1만자옥편》, 《옛사람이름편람》 등 품위있는 참고서들이 편집출판되어 민족고전전문가양성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민족고전전문가양성체계에 따라 양성된 능력있는 민족고전전문가들에 의하여 조선봉건왕조실록을 비롯한 민족고전들을 정리연구하고 번역출판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는 민족고전문화유산이 우리 인민의 귀중한 재보로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야 할 것이다.